

도내 건축물 40% 30년 넘어 '노후'

주거용은 54% 차지 '심각'... 안전대책 시급

전북지역 건축물 약 2등 중 1등은 지어진지 30년 넘는 노후 건축물로 드러났다. 전체 건축물의 42%가 이에 해당했다. 국토교통부가 3일 발표한 '전국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전북지역 전체 건축물은 총 43만3,382동이다. 이 가운데 10년 미만 건물은 18.2%인 7만8,609동, 10~15년 미만은 8.6%

인 3만7,839동, 15~20년 미만은 10.4%인 4만5,694동, 20~25년 미만은 11.9%인 5만2,071동, 25~30년 미만은 5.2%인 2만8,066동이었다. 또 30~35년 미만은 5.6%인 2만4,527동, 35년 이상 노후 건축물은 무려 36.8%를 차지한 16만8,077동이었다. 전체 건물 약 3등 중 1등이 이에 해당되며 지진발생 등으로 인한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주거용으로 좁힐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도내 주거용 전체 건축물은 26만 6,580동이며 이 중 54.4%인 14만5,001동이 30년 이상된 노후 건물인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이 가운데 48%인 12만7,962동은 35년을 넘어섰다. 지역별로 보면 순창군 건물이 가장 노후 됐다. 순창 지역의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은 28.2%를 차지하며 도내에서 노후 건축물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부안 26.8%, 진안 24.5%, 남원 23.3%, 무주 22.9%, 김제 19.6%, 익산 18.2% 등의 순이었다. 주거용 건축물은 순창이 43.2%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부안 40.1%, 진안 38.3%, 정수 34.8%, 무주 33.9% 등의 순을 보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북지역 건축물 중 슈퍼마켓과 일반음식점과 같은 1·2층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설탕이 사랑나눔 알뜰장 전주시(여성자원활동센터(회장 김영순)는 3일 설 명절을 앞두고 전주시청 민원실 앞마당에서 '설탕이 사랑나눔 알뜰장'을 열었다. 알뜰장에서는 유과, 꿀비, 과일을 비롯한 제수용품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자 직거래로 판매하고 있다.

전주시, 팔복새마을 조성사업 추진

주민설명회 개최... 71억원 투입 주거환경 개선

전주시가 노후주거지 밀집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팔복새마을 조성사업이 추진된다. 전주시는 3일 팔복동 신상교회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해당 지역 주민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팔복 새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팔복 새마을 조성사업'은 지난해 3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실시한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

선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오는 2018년까지 국비 50억원 등 총 71억원을 투입해 팔복동 준공업지역 내 노후주거지 밀집지역(4만8,000㎡)을 대상으로 생활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주민여량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을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팔복 새마을 조성사업 마스터

플랜의 수립 목표와 추진방향 및 사업추진체계 등을 설명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생활도로 개선, 골목길 위험시설 정비, 희망의 집 조성, 폐공간 정비 등의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사업과 집수리 정비사업과 주민공동체 육성 및 지역사회 연계사업 등이다. 이와 함께 시는 주민공동체를 기반으로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마을기업 일자리센터와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저소득층과 노인층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재 기자

조합원 3000명에 문자 보낸 조합장 벌금 200만원 선고

전주자법 형사5단독(양시호 판사)는 3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3000여명에게 인부문자를 보내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제의 한 농협조합장 고모(6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고씨는 지난해 2월 9일부터 19일까지 문자발송 프로그램을 통해 조합원 3273명에게 자신의 이름이 포함된 인부 문자를 6차례에 걸쳐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3월 8일 한 조합원의 집에 찾아가 "이번 선거 좀 도와달라, 꼭 좀 부탁한다"고 지지를 호소하고 현금 10만원을 전달하는 등 조합원 3명의 집에 찾아가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치는 행위"라며 "금품을 제공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용주기자

마트 상습 절도 50대 女 '덜미'

덕진경찰서는 3일 마트에서 상습적으로 물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5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4일 밤 10시2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마트에서 LED전구, 잡화, 식료품 13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지난해 9월 중순부터 이날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총 25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대를 통과하지 않고 손님들이 들어오는 문을 이용해 빠져 나가는 수법으로 마트 물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노영 기자

전북경찰, 데이트 폭력 근절 나서

도내 15곳에 전담 TF 운영

전북경찰청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연인 간 폭력 근절 전담반(TF)'을 도내 15개 경찰서에 설치·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날부터 한 달간 데이트 폭력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 폭력 신고에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경찰은 최근 데이트폭력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연인 간 폭력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TF팀을 운영, 데이트폭력 근절에 집중할 계획이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데이트 폭력 건수는 지난 2012년 212건, 2013년 204건, 2014년 190건, 지난해도 220건으로 매년 200건 안팎의 데이트 폭

력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0월 26일 헤어질 여자친구를 폭행·감금한 혐의(폭행 등)로 A(23)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날 오전 0시 30분께 전주시 한 임대사에 살고 있는 전 여자친구 B(20·여)씨의 집에 찾아가 B씨의 얼굴, 목 등을 수차례 때리고 자신의 차에 태워 2시간여 동안 끌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헤어질 여자친구 B씨의 집을 찾아 다시 만날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연인 간 데이트 폭력이 끊이지 않는 데는 일부 간 폭력은 엄정한 처벌이 이뤄졌지만 연인 간 폭력은 사회적 영역으로 방치돼 왔던 때문으로 분석된다. /박용주 기자

전주시, 버스승강장 15곳에 탄소발열의자 설치

전주시가 미래산업의 쌀로 불리는 최첨단 탄소소재를 이용해 추운 날씨 속 버스 승객을 기다리는 시민들을 따뜻하게 만들고 있다. 3일 전주시에 따르면 총 사업비 4500만원을 투입해 오는 15일까지 전지역 광장과 전동시장·한옥마을 버스승강장 등 15곳에 총 16개의 탄소발열의자와 전기·조명시설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탄소발열의자가 설치된 전주지역 승강장은 전주시보건소·다가우체육과 전북대학교, 남부시장, 모래내시장, 조촌초교 등 모두 29곳(34개)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34개 승강장(40개)으로 늘어나게 된다. 탄소발열의자에는 단 한명의 시민도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를 세심하게 배려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만들겠다는 전주시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탄소발열의자는 전주의 미래성장동력산업인 탄소산업의 대표적인 실용화 제품으로, 지난 2014년 11월 새마을인력시장 일용근로자를 위한 쉼터(다가우 이씨간담집 옆 버스정류장) 등 8곳에 처음 설치됐다. 이후 버스승강장에 하나둘씩 설치된 탄소발열의자는 겨울철 영하 10℃ 안팎을 오가는 추운 날씨 속에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몸과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 /김영재기자

사전선거운동 전주농협조합장 벌금 90만원

전주자법 형사5단독(양시호 판사)는 3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주농협 임인규(61) 조합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최종 확정되면 임 조합장은 조합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관련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로 된다. 임 조합장은 2014년 9월1일 조합원 6229명에게 편지를 보내고 지난해 1월22일 조합원 겸 직원 2명에게 전화로 지지를 유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임 조합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내 구모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구씨는 지난해 2월28일부터 3월12일

까지 이 농협 조합원 8명에게 남편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용주기자

별목현장 공구 훔친 50대 입건

무주경찰서는 3일 별목현장에서 엔진톱 등 공구를 훔친 혐의(절도)로 박모(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0시께 무주군 적상면의 입야 별목현장에서 인부들이 작업을 중단하고 현장 놓아둔 엔진톱 등 92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이날 고로쇠 채취를 위해 산을 찾았다가 엔진톱을 발견하고 자신의 차량에 싣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노영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ivs.or.kr *전자우편 : jivs@hanmail.net